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 칼럼

光日春秋



박재희
인문학공부마을 석천학당 원장

중동지역의 전쟁 소식이 실시간으로 전해진다. 이스라엘을 박격포로 공격한 팔레스타인의 무장 정파 하마스, 이에 전쟁 경보를 선포하고 반격에 나선 이스라엘, 여기에 하마스를 옹호하며 공격 작전에 끼여든 시아파 헤즈블라, 하마스과 헤즈블라를 뒤에서 도와주는 이란, 이스라엘을 옹호하며 항모전단 전진 배치와 합동 군사작전을 예고한 미국, 이스라엘과 수교보다 이슬람 세력과 연계하여 정치적 이익을 얻겠다는 사우디의 복잡한 계산, 전쟁에는 많은 국가의 정치와 이익이 연결되어 있다.

‘전쟁은 정치의 연속(War is a continuation of politics)’이라고 프로이센의 전쟁 이론가 클라우제비츠(Carl Von Clausewitz)는 그의 저서 ‘전쟁론’에서 정의한다. 전쟁은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무력을 사용한다. 전쟁은 감정이나 이유 없는 무력 충돌이 아니라 그 안에는 정치적 이익과 계산이 깔려 있다. 소련이 우크라이나를 공격하여 전쟁을 벌이는 일도 푸틴과

손자병법 전쟁론

러시아 권력의 정치적 계산과 이익이 숨겨져 있다. 정치의 핵심은 권력의 획득과 유지다. 전쟁을 통해 누군가는 권력을 강화하고, 누군가는 권력을 유지한다. 뇌물 혐의로 공지에 몰려 있는 이스라엘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는 이번 전쟁을 통해 국민의 시선을 다른 곳에 돌릴 수 있을 것이며, 하마스 지도자이자 팔레스타인 총리인 이스마일 하니야는 그의 권력을 더욱 공고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란은 이스라엘과 사우디의 수교를 막을 수 있을 것이고, 미국은 다음 대선에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전쟁을 통해 피해를 보고 있는 사람들은 민간인과 노약자들이다. 전쟁은 전쟁의 주체들에게는 큰 피해를 주지 않는다. 그들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애꿎은 사람들만 피해를 본다. 그래서 전쟁의 위협이나 전쟁의 공포를 떠드는 사람은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려는 의도가 있음을 알아야 한다.

동양의 병법서 ‘손자병법’에서는 전쟁을 국가의 존망(存亡)과 국민의 생사(生死)를 결정짓는 중대한 일(大事, 대사)이라고 정의한다. 전쟁을 통해 국가가 망하고, 국민이 죽을 수 있는 참사가 일어날 수 있다고 손자병법 시계(始計) 편 첫 구절에서 경고하고 있다. 그래서 전쟁은 함부로 벌여서는 안 되고, 전쟁이 나면 가능한 한 빨리 끝내야 한다고 강조한다. 전쟁은 자존심도 아니고, 남의 평가도 중요한 것이 아니다. 빨리 전쟁을 끝내서 물자와 인명의 피해를 최대한 줄여야 한다.

손자의 졸속(拙速) 이론이다. 못나도(拙) 전쟁은 빨리(速) 끝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다. 전쟁이 오래 지속되면 농토는 황폐해지고, 젊은이들은 전장에서 이름 없이 죽어가고, 백성들은 가족과 흠어져 이산가족이 되는 불행은 겪어야 한다. 춘추시대 사상가들이 공통으로 지적하는 전쟁의 비극이다.

손자는 싸우지 않고 이기는 부전승(不戰勝)이 가장 위대한 승리라고 말한다. 같은 칼집을 떠나는 순간 이미 칼의 가치는 떨어진다. 칼에 묻은 피를 닦아야 하며, 그 피를 흘린 사람들의 원한도 감당해야 한다. 비싼 무기는 사용되는 순간 그 가치가 하락한다. 높은 돈을 주고 무기를 사고 유지하는 것은 방어력을 높여 전쟁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무기는 오래되어서 사용하지 않고 폐기되는 것이 가장 효율성을 높게 사용한 것이다. 전쟁을 경험하지 못했거나, 게임기 안에서 전쟁을 경험한 세대들의 전쟁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 전쟁을 마치 게임인 듯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전쟁은 벌여잡고 동시에 모든 윤리는 정지되고, 인권과 정의는 소멸한다. 오로지 승패를 위한 처절한 싸움만 있을 뿐이다.

남북한이 대치하여 휴전 상태인 대한민국에서 전쟁은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된다. 전쟁이 더 이상 정치의 수단으로 사용되어서도 안 된다. 용기가 없어서 안 싸우는 것이 아니다. 절제는 용기의 가장 높은 가치다. 세계 곳곳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영상으로 생중계되는 시대에 불용이 한반도에 튀지 않기를 바란다.

종교칼럼

익숙함의 속임수



황성호
신부
광주가톨릭 사회복지회 부국장

“행복하고 싶습니까?”라고 물으면 누구나 다 “네. 행복하고 싶습니다.”라고 대답한다. 행복(幸福)의 사전적 의미로 두 가지가 있다. 사람이 생활 속에서 기쁘고 즐겁고 만족을 느끼는 상태인 내적인 의미와 사람이 운수가 좋은 일이 많이 생기거나 풍족한 삶을 누리는 상태인 외적인 의미가 있다. 내적인 좋은 감정과 외적인 욕구의 충족으로도 표현할 수 있지만 우리 각자가 다른 역사와 삶 그리고 환경과 조건이 다르기에 무엇이 행복의 답이라고 명확하게 말할 수 없다.

자명한 사실은 인간 존재라면 어른이나 아이나 할 것 없이 행복하길 원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행복하기 위해서 찾고 노력하고 소유하고 관계를 하는 것인지도 모른다. ‘이것’이 행복이라고 선택하여 집중하게 되는데, 그 집중이 계속되어 어떤 것과 바뀔 수 없는 집착으로 이어져 절대성까지 부여하게 된다. 이것이 자신의 삶에 익숙해져서 중요하고 일을 잃어버린 것일까. 행복을 느끼며 살아야 할 내 존재가 이제는 그것이 없으

면 살 수 없고, 급기야 노예로까지 전락해버리는 경우가 허다하다. 돈을 모으는 것이 자기 삶의 행복이라고 했을 때, 이 얼마나 슬픈 현실이고 물질의 속박에 갇힌 어리석은 노예의 삶이겠는가. 익숙해진다라는 것은 때론 어떤 것도 받아들일 수 없는 폐쇄적인 삶이 되는 뜻이 될 수 있다.

니체가 “신은 죽었다”라고 말했다고 할 때, 당시의 사람들은 니체의 철학적 논리를 모두 강하게 비판하였다. 니체가 신은 죽었다라고 주장한 이유는 당시 사회와 그 사회를 아꼈던 교회가 가야할 길을 제대로 가지 않았기 때문이다. 니체의 주장은 모두가 익숙했던 기존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이었고, 교회의 형식주의를 향한 뼈아픈 질타였다. 그러나 니체는 사람들이 행복하길 바랐고 그 행복이 어떤 형식주의나 익숙하게 살아왔던 방식이 사람들의 행복을 장담해주지 못한다는 것을 알았다. 기존의 질서가 익숙하고 편했기에 니체의 주장에 강한 비판을 했고, 익숙함을 놓치게 되면 불편하기에 공격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해본다.

그런데 기존의 것에 익숙하게 되면 볼 수 있는 것을 보지 못하게 되고 아는 것조차 인정하기 어렵게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생명이 소중하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 그러나 내 옆에서 누군가 죽어가는 이가 있는데도, 익숙함에 속아 그 생명이 꺼져가는 것을 그냥 보고만 있게 되는 어리석은 모습이 보인다. 복음에 이런 어리석은 자들이 많이 소개된다. 상처가 깊어 냄새나는 거지 라자로가 식탁 밑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풍성하게 차려진 음식을 게걸스럽게 먹는 부자, 길에 쓰러져 죽어가는 사람이 있는데도 자신의 신분과 안위 때문에 죽어가는 이를 앞에 두고 들어가는 사제와 레위인, 평생을 불구로 살았던 이를 치유해주었더니 신성 모독이라고 공격했던 이스라엘 지도자들의 어리석음이 이것이다. 무엇이 이들에게 소중하며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생명을 헌신처럼 대하게 했고, 무엇이 죽음의 벼랑 끝에서 있는 이들을 밀쳐버리는 무모한 폭력이 나오게 한 것일까.

다시 한번 “행복하고 싶습니까?”라고 자신에게 의문을 던져보자. 분명 “그렇다. 행복하고 싶다”라고 대답할 것이다. 그렇다면 나의 참된 행복을 위해 나에게 익숙한 것이 무엇인지 살펴볼기를 권해본다. 그리고 이 익숙함을 과감하게 떨쳐냈으면 한다. 왜냐하면 나를 익숙하게 만드는 그 어떤 것은 언제나 ‘나’라는 존재의 삶과 행복을 방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익숙한 것이 쉽고 편하고 좋을 때가 많다. 우리의 몸과 감각은 항상 익숙한 것에 중요성을 부여하고 그것에 집중하도록 이끈다. 그래서 어렵고 힘든 것은 자연스럽게 피하려 하고 힘들지 않은 손쉬운 것을 하려고 한다. 우리 모두 솔직하게 대답해보자. 살아오면서 손쉬운 것이 어디 있었으며, 아무 노력도 없이 좋은 것을 얻었는지 자신에게 물어보자. 익숙함에 속을 수 있는 우리에게 마태오 복음 7장 13절의 말씀이 떠오른다.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이끄는 문은 넓고 길도 넓적하여 그리고 들어가는 자들이 많다.”

기고

무등산 정상 상시 개방보다 복원에 방점 뒤야



이해모
국립공원무등산지킴이시민연대 운영위원

광주시가 무등산국립공원 정상을 시민들에게 내어준다고 했다. 정상을 폐쇄한 지 57년 만이다. 거리 곳곳에는 ‘올 가을엔 무등산 정상이 활짝’이라는 홍보 플래카드가 걸려 있다. 그리고 지난 9월 23일 광주시와 무등산국립공원사무소는 그동안 일반 시민들의 접근이 제한되었던 무등산 정상부를 개방했다.

무등산 상시 개방 소식을 뉴스로만 전해 듣다가 궁금증이 일어 직접 걸어보기로 했다. 마침 추석 연휴도 길게 잡혀 있어서 하루 날을 잡아 지인들과 무등산으로 향했다. 원효사에서 장물재를 지나고 장물재에서 다시 입석대를 거쳐 서석대 정상에 섰다. 서석대에서 가로 막힌 등산로가 인양봉까지 연결되었다. 많은 사람들이 인양봉을 향해 오르고 있었다.

폭 1.8m로 새롭게 조성된 인양봉으로 오르는 등산로 양옆으로는 커다란 역세가 활짝 피어나고 있었다. 그 아름다운 장엄에 반해 많은 사람들이 역세밭에 들어가 가을을 만끽하고 있었다. 그러다보니 역세가 꺾이고 넘어져 군데군데 돛자리를 펼쳐놓은 듯 납작한 밭이 되어버렸다. 개방된 지 며칠이나 되었다고 산의 훼손이 시작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나지화 면적은

갈수록 늘어날 것이다. 또 군사기밀 보안유지를 위해 부대 후문부터 인양봉까지 가림막이 설치되어 있었다. 그 길을 지나는 사람들은 “이게 무슨 정상 개방인가”며 한마디씩 내뱉었다. 완전한 정상 개방을 기대하고 온 사람들이다. 기대치가 너무 높았는지 다들 어처구니 없어 하는 모습이 다.

57년만에 시민들의 품으로 돌아왔다는 무등산 정상 개방, 과연 참수 들고 환영할 일인가. 결코 그렇지 않다. 무등산 정상은 지난 1966년부터 공군부대가 주둔하면서 천양봉 정상은 4m 내외가 잘려나갔고, 천양봉을 비롯 지왕봉, 인양봉 등 정상부의 생태계는 교란되고 파괴되었다. 무등산국립공원 정상부 복원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공군부대가 주둔하게 되면서 훼손된 정상부 복원은 중장기적인 전망과 계획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공군부대가 장기간 주둔하면서 천·지·인양봉 일원은 매우 심각한 수준으로 훼손되어 있다. 지형 훼손은 말할 것 없고 지질학적인 가치도 훼손되어 있으며, 당연히 자연생태계도 많이 교란되었다. 이를 복원하기 위해서는 민관 거버넌스를 통해 함께 마음을 모아 아낌없는 노력과 연구가 필요하다.

지난 2016년에 발표된 국립공원관리공단 무등산사무소의 연구용역 결과에 의하면 정상부에는 꽃장포, 정향나무, 백작약, 여러병풍 등 특이식물과 희귀식물들이 자생하고 있으며, 정상부 주변 일부에 주상절리대가 남아있다. 그런데도 광주시와 국립공원공단은 정상부 복원 작업과는 별개로 성급하게 정상부 개방이라는 결정을 내리고 등산객들의 출입을 상시적으로 하게 되었다. 시민들에게 무등산 정상부의 절경을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야 백번 이해한다 쳐도 이는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 없다. 생태계 훼손은 물론이고 천혜의 자연경관을 해칠 우려가 매우 높기 때문이다.

인양봉에 올라서서 광주시내를 조망하고 다시 서석대 정상부로 내려왔다. 12시가 갓 넘었는데 오전에만 벌써 900여 명이 다녀갔음을 알리는 전광판이 눈에 들어온다. 그간 공군부대의 주둔으로 인하여 회복하기 어려운 정도의 생채기가 난 무등산이다. 여기에 다시 아무런 장치도 없이 무작정 개방해서 등산객들의 발길 이 이어진다면 그 산이 온전할까. 영험한 정기를 품고 오랫동안 광주의 역사를 안고 이어져 내려온 무등산의 그 기운을 제대로 후손에게 물려줄 수 있을까. 무등산국립공원 정상부 복원이라는 우리들의 희망을 담은 판도라 상자는 과연 열릴까.

社說

원전 지하시설 추진... 핵폐기장 ‘꼼수’ 아니길

정부가 최근 비공개로 원전 지하연구시설 추진을 위한 설명회를 개최해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저장장(방폐장)을 건설하기 위한 절차에 들어간 것이 아닌가라는 의구심을 낳고 있다. 설명회 주최가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인데 대상이 영광군과 전남도, 경주시, 경북도 등 원전 소재 관련 자치단체인 점도 이런 의구심에 힘을 더하고 있다.

경주에서 열린 설명회는 해당 자치단체 공무원들이 참석해 가운데 비공개로 열렸는데 정부는 이 자리에서 원전 소재 자치단체의 신청을 받아 지하 500m에 지하연구시설(URL)을 짓겠다고 밝혔다. URL은 원전 가동후 남은 핵폐기물인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 시스템의 성능과 안전성을 연구하는 시설로 공단은 2025년부터 2031년까지 5000억 원을 투입해 건설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다음 달 초 국회에서 고준위특별법이 통과되면 내년 5월 URL 부지를 선정해 내년 연말안에 건설사업을

시작할 계획이라는 타임 스케줄을 밝히면서 부지 공모를 언급하기도 했다. 그러면 서 URL은 순수한 연구시설로 사용후 핵연료는 반입하지 않아 영구 처분 부지와 다르다고 밝혔지만 전문가들은 고준위 방폐장 설치를 위한 사전 수순으로 판단하고 있다.

즉 시안이 흐르면서 연구시설→임시저장시설→방폐장으로 자연스럽게 진행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의 지적에 공감 가는 이유는 URL은 지진을 버티내는 단단한 기반암 등 까다로운 조건을 갖춰야 가능한데 한 번 설치하면 같은 조건의 다른 입지를 찾기 힘들기 때문이다. 정부는 고준위 핵폐기물 저장시설이 2030년 가동할 것에 대비해 대안을 찾고 있지만 주민들의 반발에 막혀 있다. 그렇다고 URL이란 이름으로 사실상 임시 방편장 설치를 추진해서야 되겠는가. 해법은 항상 꼼수에 있지 않고 정면 돌파에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막 오른 전국체전... ‘화합과 감동’의 제전으로

제104회 전국체육대회가 오늘부터 19일까지 7일간 목포시를 비롯한 전남 22개 시·군에서 분산 개최된다. 2008년 제89회 대회를 여수에서 개최한지 15년만이다. 해남·고흥에서 특별 개최된 불꽃과 강화도 마니산과 목포에서 공식 개최된 4개의 불꽃이 개막식에서 하나로 합쳐진다.

이번 전국체전에는 전국 17개 시·도와 해외에서 총 2만 8447명의 선수와 임원이 참여해 열전을 펼친다. 지난 8일 막을 내린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선수들과 내년 7월 열리는 파리 올림픽에 참가할 선수들도 이번 전국체전에서 갈고 닦은 기량을 겨룬다. 축구와 육상경기가 열리는 목포 종합경기장을 중심으로 도내 22개 시·군 70개 경기장에서 경기가 진행된다.

이번 제전은 ‘친환경 운영’과 ‘안전한 대회’, ‘공정한 경기’의 영어얏 글자를 딴

ESG 캠페인을 펼치며 친환경 대회로 치러진다. 이를 위해 선수들은 경기 기록 전산화와 플라스틱 사용 금지, SNS 친환경 활동 인증 등을 실천하게 된다.

또한 제전 기간 동안 문화예술 축전이 함께 펼쳐진다. 17개 광역 시·도 대표 문화예술 단체 공연을 비롯해 ‘버싱킹 전국체전’, ‘EDM 파티’ 등 다채로운 문화예술 무대가 목포 평화광장과 도내 6개 시·군에서 진행된다.

스포츠의 매력은 ‘도전’과 ‘패어 플레이’다. 선수들은 기존 기록을 깨기 위해 온 힘을 다해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으며, 상대에 맞서 공정한 경기에 임한다. 이러한 선수들의 플레이는 이념으로 분열된 사회를 하나로 묶기도 한다. 연일 이진투구를 일삼는 정치인과 정치권이 본받아야 할 가치다. 그동안 굶은 땀방울을 흘려가며 훈련한 선수들이 이번 전국체전에서 좋은 결과를 올리기를 응원한다.

無等鼓

가을이 운동회의 계절이긴 하지만 올해는 아시안게임과 전국체전까지 잇따라 열린다. 스포츠 팬들을 더욱 들뜨게 하고 있다. 아시안게임의 감동과 여운이 채가 시기도 전에 전국체전이 개막한다. 웬만한 세계 대회나 경기에서 상위권 성적을 내는 한국은 역시 아시안게임에서도 뛰어난 성적을 내고 있다. 한국은 올해로 19회를 치른 아시안게임에 18차례 참가, 대부분 2위와 3위에 올랐다.

아시안게임은 1951년 첫 대회가 열렸다. 1940년대 후반 아시아에 신생 독립국들이 많이 생겨난 상황에서, 1948년 런던올림픽을 계기로 아시아만의 스포츠 대회를 만들자는 공감대가 생겨났다. 이 과정에 한국, 인도, 미얀마, 중국, 필리핀, 스리랑카 등 6개 국가가 1950년 제1회 대회를 인도 뉴델리에서 개최하기로 했다. 그러나 인도의 준비 부족으로 대회는 1951년에야 열렸다. 한국은 6·25 전쟁 때문에 참가하지 못했다.

초창기 아시안게임 참가국이었던 이스라엘은 아랍 국가들의 압력과 반발로 대회에 참가하지 못하게 됐고, 대만은 중국

의 압력 탓에 참가에 어려움을 겪다가 참가단 명칭을 차이니스 타이베이(Chinese Taipei)으로 바꾼 후 출전하고 있다.

한국의 아시안게임 성적은 지금까지 2위 9차례, 3위 7차례, 4위·6위 각 1차례를 기록했다. 하지만 1위는 한번도 하지 못했다. 서울에서 아시안 게임을 개최했던 1986년 금메달 93개로 중국(금 94개)에게 아깝게 정상을 내줬던 때가 최고의 성적이었다. 1950년대~1970년대 1회부터 8회까지는 일본이 1위를 차지했고 1982년 9회 대회부터 올해 19회 대회까지 중국이 11연패를

하고 있다. 이제는 현실적으로 1위는 중국 독차지가 됐고, 2위 자리를 놓고 한국과 일본이 엇치락뒤치락하는 형국이다. 이 때문에 아시안 게임은 ‘한중일 운동회’라는 곱지않은 평가를 받기도 한다. 혼신의 열정을 불사르는 선수들의 경기는 항상 깊은 감동을 준다. 전국체전이 13일 전남에서 막을 올린다. 또다시 투혼을 불태우는 선수들의 경기 하나하나에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

/채희중 정치담당 편집국장 chae@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회장·발행인 金汝松	논설실장 張必洙	편집총괄국장 崔宰豪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 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지국(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인내	(대표 FAX 222-4918)	경영지 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편집부 220-0649	문화부 220-0661	(FAX 222-8005)	(FAX 222-0195)
정치부 220-0652	예향부 220-0692	기획관리국 227-9600	업무국 220-0551
경제부 220-0663	사진부 220-0693	(FAX 222-0195)	(FAX 222-0195)
사회부 220-0664	체육부 220-0697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전남본부 220-0680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5,000원 1부 8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